

‘매출 10%↓’ 음식업, 경영자금 7000만원 年 1.5% 대출

코로나19 피해 정책지원 A to Z

지역신보 특례보증 총 1조원
보증요율 1%→0.8%로 낮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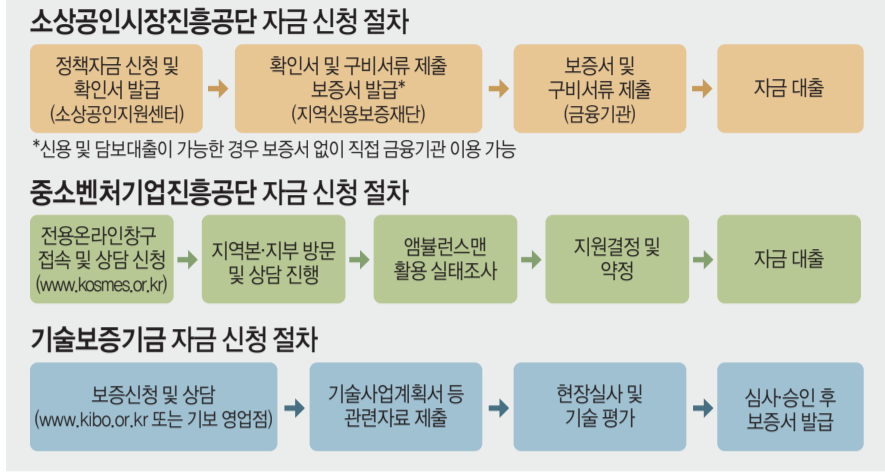
소상공인 1곳당 대출 7천만원
거치기간 2년 포함 최대 5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정부를 거쳐 2일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확대되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소상공인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 때 매일 100여개 넘게 테이블을 받으며 장사를 했던 한 지인의 가게는 지난 주말에도 몇 테이블만 잘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면서 “과거 메르스 때에도 적지 않은 점포들이 문을 닫았는데 이번 코로나19 충격은 그때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장사에 타격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각 지자체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을 1조42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기존 1.75%에서 1.5%로 내렸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신보의 특례보증도 1000억원에서 9000억원 더해 총 1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요율도 1%에서 0.8%로 낮췄다.

당초 200억원에서 1조42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은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기업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외에 소진공이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은 소상공인 1곳당 7000만원 이내에서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지원신청이나 문의는 통합콜센터(1357)나 소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다.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들은 지역신보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도 신청·확인서 발급 후 바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총 1조원의 보증지원이 가능한 지역신보를 이용할길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곳들이 대상이다.

지역신보의 업체당 보증액은 최대 7000만원까지로 0.8% 이내의 보증요율을 적용, 100%까지 보증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최대 5이다. 하지만 보증신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신용불량 상태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세·지방세 체납자, 회생·면책·신용회복 중인 자도 마찬가지다.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나 기술보증기금등을 노크하면 된다. 대상 중소기업들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곳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도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5년(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4분기 현재 2.15%다.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 신청을 먼저 한 후 지역에 있는 본부나 지부를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상담창구 방문시에는 자가진단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기보도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관광 숙박업 등과 공인법상 공연장 운영업, 의료법상 의료기관 등을 영위하는 피해 사실 확인기업에 대해 3억원 이내에서 보증해준다. 최근 1년 이내에 중국 관련 수출이나 수입 실적이 있는 피해 기업도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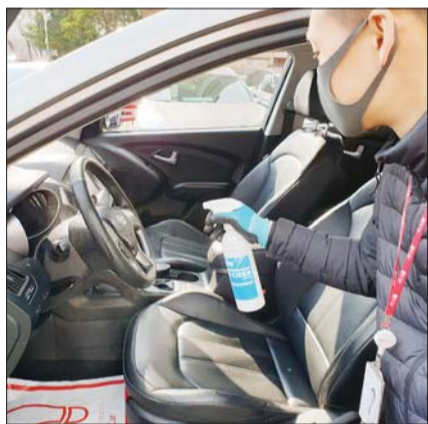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본부 간부, 지방중기청장, 11개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긴급 확대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와 경제활동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면서 “이제부터는 긴급경영안정자금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보다 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영쇼핑과 행복한백화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도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고차 거래도 비대면... 차별화 서비스 ↑

케이카, 홈서비스 이용 7.5%p 증가
코로나 불안해소 살균소독 서비스
리본카, 피톤치드 연무서비스 제공



케이카 코로나 살균소독.

국내 중고차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 비대면 차량 구매 증가와 업체별 차별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2일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업체인 K Car(케이카)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비대면 차량 구매 서비스에 소비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케이카가 자사 온라인 구매 서비스 ‘내차사기 홈서비스’(이하 홈서비스)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2월 25일 기준 이용자는 전체 구매자의 38.3%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30.8%) 대비 7.5%p 증가한 수치이다. 작년 2월 비중은 24.2%로 전년 대비로는 14.1%p 증가했다.

2월 홈서비스 비중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월 17일 홈서비스 이용률

판 경고등 점등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살핀다.

중고차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차별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케이카는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차량에 살균소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고객에게 인도하는 차량에 천연세제를 활용한 살균소독 서비스를 완료했음을 알리는 안내문도 부착하여 전달한다.

리본카는 모든 출고 차량과 방문점검 차량을 대상으로 실내 살균 효과가 있는 ‘편백나무 피톤치드 연무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리본카에서 1년간 2회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 대상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운전석, 조수석, 바닥매트, 뒷좌석 등 차량 실내 곳곳에 전용 연무기를 통해 편백나무 피톤치드를 훈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무서비스가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피톤치드 분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성훈 기자 ysw@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인 휴이노(HUINNO)가 5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추가로 시리즈 A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휴이노 임직원 일동. /휴이노

휴이노, 50억 투자유치 ‘시리즈 A’ 마무리

유한양행 단독투자, 2대주주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인 휴이노(HUINNO)가 5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추가로 시리즈 A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국내 1위 제약사인 유한양행의 단독 투자로 성사됐다. 유한양행은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인수하는 형태로 총 50억원을 투자해 휴이노의 2대주주 권리를 확보했다.

휴이노는 최근 금융투자자(FI) 그룹을 통해 시리즈 A 유상증자를 완료했으며, 유한양행이 전략적투자자(SI)로 새롭게 참여했다.

휴이노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스마트 모니터링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환자가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휴대하고 다니며 증상이 느껴질 때 언제 어디서나 심전도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심장내과 및 흉부외과 교수진이 측정된 심전도를 확인하게 된다.

‘메모워치’는 이미 KFDA 승인을 확

득했으며, 개발 중인 ‘메모패치’도 올해 상반기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AI 기반의 ‘메모AI’는 측정된 심전도를 의료진이 손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다.

유한양행은 자사의 경구용항응고제(NOAC) 보급과 함께 휴이노 심전도 기기의 분석 및 모니터링 기술의 확산을 도울 예정이다. 기존 1차 의료기관(개원의)의 경우,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와 분석 기술의 보급이 어려워 경구용항응고제를 처방할 수 있는 길이 요원했으나 휴이노 기술을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손쉽게 심전도를 측정 및 분석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부정맥 환자를 조기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이노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함께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 부정맥 진단’ 사업을 위한 임상시험 공고를 게시하고 지난 2월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임상시험 환자 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재창업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도움 컸다

기업 823곳 5년간 991억 도움받아
총 보증건수 7496건, 기업당 9.1건

재창업기업을 위한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통해 도움받은 기업이 5년간 823곳, 총 9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에게 공급한 보증건수

만 총 7496건으로 기업당 평균 9.1건, 보증금액으로는 1건당 1억2000만원에 달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입한 재창업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이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채무가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입찰·계약·선금급·하차·지급보증 등 납품 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재창업기업이 대상이다.

중기부의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서울보증이 무담보로 기업당 2년간 5억원 한도내에서 이행보증서를 무대, 발급해주는 것이 골자로 재창업기업들에게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김승호 기자